

기도

1.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2. 담임 목사님과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눔

1. 나에게는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2.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더해 주신 것들을 나눠주세요.

신앙

## 염려

예수님 당시와 같은 고대 세계에서는 대부분의 사람이 가장 기초적 필요인 의식주, 즉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 외에는 거의 가진 것이 없었다. 이러한 생필품을 구하는 일은 계절이나 강수량 같은 자연 조건에 달려 있었다.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향해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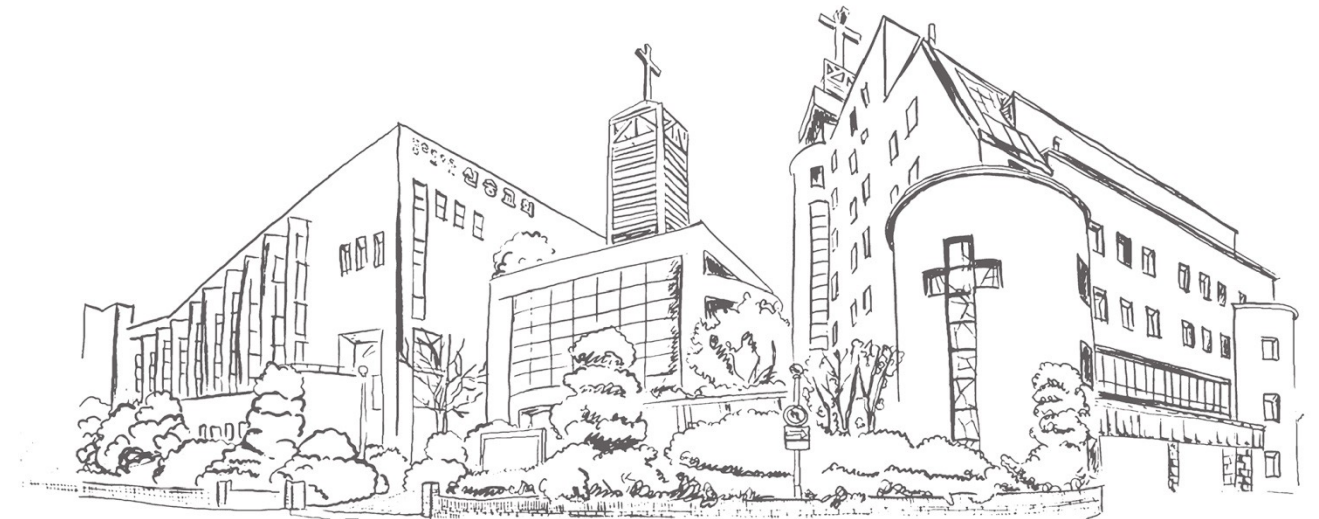


# 구역 공과

2023년 2월 19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사야 2장 2-4절)



##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29-34절 (찬23장, 370장)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33절). 오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셔서 그것들을 통해 모든 염려를 버리시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 첫 번째로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29-32절).

예수님께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꽃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29-30절a). 이는 인간이 세상에서 받는 가장 큰 영광보다 들에 사는 꽃의 영광이 더 영광스럽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꽃 조차도 아름답게 입히시고 색칠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30절b). 이는 하나님께서 들에 난 꽃들을 아름답게 입히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당연히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 주셔서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으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31절).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입니다(32절).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로서 세상 것으로 자신의 영광을 누리려 하는 자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필요와 우리의 필요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필요와 만족을 쫓아가면 세상 것에 매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22-23절). 이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살면 우리에게 염려할 일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 두 번째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33-34절).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33절a). 그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이들에게 전달됩니다. 이처럼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면서 나 뿐 아니라 모든 이들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심령이 살아나 어떤 상황이든지 기쁨과 평안이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의’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33절b).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9:15). 우리에게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주마다 주시는 말씀을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33절). 이 말씀은 세상의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우선 순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고 더하여 주신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게 우리에게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고 하시며 결과에 대해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34절). 오늘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 맺 음 말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의 나라를 구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기쁨과 평안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염려치 않도록 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나아갈 때 감사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